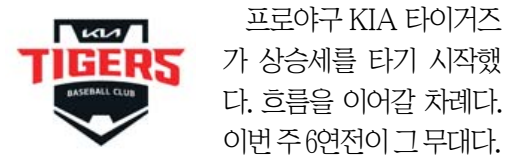


‘다시, 뜨겁게’...상승 흐름타고 슷구쳐라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흐름을 이어갈 차례다. 이번 주 6연전이다. 13일 기준 KIA는 6승 7패. 한화·NC와 함께 공동 5위다. 선두 LG·KT와는 3경기 차, 4위 SSG와는 1경기 차다. 아래도 총총하다. 8위 롯데와 1경기 차, 9위 두산과 1.5경기 차, 10위 키움과는 2경기 차다. 한 주 결과에 따라 순위는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구간이다.

출발은 불안했다. 개막 직후 공동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타선의 힘으로 분위기를 빠르게 뒤집었다.

지난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뒀다. 삼성과 홈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뒤, 한화 원정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다. 4연승으로

프로야구 팀별 순위 (13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9	4	0	0.692	0
1	kt	9	4	0	0.692	0
3	삼성	8	4	1	0.667	0.5
4	SSG	7	6	0	0.538	2
5	한화	6	7	0	0.462	3
5	NC	6	7	0	0.462	3
5	KIA	6	7	0	0.462	3
8	롯데	5	8	0	0.385	4
9	두산	4	8	1	0.333	4.5
10	키움	4	9	0	0.308	5

‘하위권’ 키움·두산 6연전...‘방심은 금물’, 초반 주도권 확보 관건
민고 보는 네일·올리, 김범수·성영탁 가능성 확인 반등 발판 마련
선발 기복·뒷문 불안 변수...‘상위권 도약’·‘빠듯하면 추락’ 갈림길

반등 기류는 뚜렷해졌다. 이번 주 상대는 키움과 두산. 모두 하위권이다. 연승을 이어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먼저 광주에서 10위 키움과 만난다. 키움은 최근 5경기 2승 3패. 타선이 침묵했다. 팀 타율은 리그 하위권, 지난주에는 1할대에 그쳤다. 삼진이 많고, 득점력도 떨어진다. 방망이가 전체적으로 무겁다.

다만 마운드만 놓고 보면 양상은 다르다. 지난 주 선발 평균자책점(ERA) 3.09, 불펜 ERA 2.08. 특히 불펜은 리그 1위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단단해지는 구조다.

KIA가 초반부터 점수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선발은 양현종-김태형-네일 순으로 나설 전망이다.

주말에는 잠실에서 9위 두산을 상대한다. 상황은 비슷하다. 타선은 리그 최하위, 팀 ERA는 8위. 특히 불펜은 7점대 중후반 취약점이 뚜렷하다. 초반 주도권을 잡으면 경기 운영은 한층 수월해진다. 수비 실책도 리그 두 번째로 많다. 한 번 흔들리면 이닝이 길어진다.

KIA 타선이 파고들 여지는 충분하다. 두산으로 이적한 박찬호와와의 맞대결도 관심사다.

두 팀 모두 상대 전적에서도 KIA가 앞선다. 지난해 키움전 8승 6패 2무, 두산전 9승 6패 1무. 데이터와 판세 모두 KIA 쪽으로 기울다.

결국 승부는 내버려다.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다. 지난주 팀 타율 0.318, 리그 1위. 한준수가 5할대 타율로 공격을 이끌었고, 박재현(0.389)과 데일(0.364)이 뒤를 받쳤다. 중심타선에선 나성범이 득점권 타율 0.667로 해결사 역할을 했고, 김선빈(0.353)과 카스트로(0.348)도 기회 때마다 힘을 보탤었다.

공격의 연결과 집중력. 지금 KIA의 가장 큰 무기다.

마운드도 버텨냈다. 네일과 올리가 선발에서 축을 잡았고, 김범수와 성영탁이 각각 2홀드로 뒷문을 지켰다. 승부를 지켜낼 최소한의 힘은 확인했다.

하지만 완성 단계는 아니다. 국내 선발진의 기복은 여전히 변수다. 볼넷이 많고, WHIP도 리그에서 가장 높다. 마무리 역시 안정감과는 거리가 있다. 경기 막판(9회) 실점이 가장 많고, ERA도 리그 최하위권이다.

시즌은 길다.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 앞서



KIA 4연승을 이끈 병망이의 힘. 왼쪽부터 한준수, 박재현, 데일 (KIA 타이거즈 제공)

나가고도 잡지 못한다면, 지금의 기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이번 주의 핵심은 단순하다. 초반에 잡고, 끝까지 지키는 것. 상위권 도약의 기회다. 하지만 한 번의 빠듯이 치명적이다. 추축하면 다시 바다이다. 반등의 발판은 마련됐다. 가속 페달을 밟을 시점이다. /주홍칠기자

광주시체육회, 2028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준비 박차

제7차 TF팀 회의, 접근성·공공성 등 고려 경기장 배정(안) 논의

광주시체육회가 2028년 광주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국체전 TF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7차 회의를 열고 경기장 배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종목별 경기장 검토 결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인 규격 충족 여부, 광구권 접근성, 공공성·경제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체전 50개 종목과 전국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 배정(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광주월드컵경기장, 진월국제테니스장, 광주국제양궁장, 빛고을체육관 등 광주 주요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체전 경기장 배정이 검토됐다.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도 함께 논의됐다. 장애유형과 종목 특성을 반영해 광구권 경기장 우선 배치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종목은 공인 규격 충족 여부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복수 후보지를 검토했다.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제100회 전국체전은 경기장 여건과 종목별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장 배정은 단순한 장소 선정이 아니라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개최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13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전남체육대회 폐막식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대회 수상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시 대회 3연패...“내년 고흥에서 만나요”

제65회 구례 전남체전 성료...육상 이문별·수영 허정현 MVP 영예

전남도민이 스포츠로 하나된 제65회 전남체육대회가 13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뜨거웠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라는 구호 아래 나흘간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순천시가 종합득점 4만3천625점으로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준우승은 태권도·사격·수영·유도·탁구 종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여수시(4만1천875점), 3위는 광양시(3만3천775점), 4위는 무안군(3만1천500점), 5위는 영암군(3만225점), 6위는 목포시(2만9천675점), 7위는 신안군(2만9천550점)이 각각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수영에서 4관왕을 차지한 이문별(화순군)과 육상 100m·200m·400m R에서 3관왕과 함께 100m(10.69, 종전기록 10.70)와 400mR(41.53, 종전기록 42.80)에서 대회신기록 2개를 수립한 허정현(목포시)이 공동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사격 공기소총 10m에서 600점 만점(종전기록 599점)을 쏘아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김해은(여수시)은 이번 대회에서도 600점 만점으로 대회 2연패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모범선수단상은 나주시, 모범종목단체상은 전남도태권도협회, 장려상은 담양군·함평군·완도군 선수단, 특별상인 화합상·질서상·우정

광주체육중 육상 ‘금빛 질주’ 빛났다

익산보석배 육상 전국대회, 김아인 2관왕...금4·은3·동3 쾌거

광주체육중 육상부가 ‘익산보석배 육상 전국대회’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획득하며 광주 육상의 미래를 밝게 했다.

광주체육중은 지난 8-11일 전북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 28명이 출전, 단거리와 허들 종목뿐 아니라 중장거리, 필드 종목까지 고른 활약을 펼치며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단거리와 허들 종목에 출전한 김아인(3학년)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아인은 여중부 100m에서 12초74, 100m 허들에서 16초39 기록으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중부 400m에서는 이세령이 50초45로 금메달, 류지우(3학년)가 50초88로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남중부 400m에서는 김현호(3학년)가 53초2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장거리와 계주·필드 종목에서도 메달이 잇따랐다. 신윤아·김지은(3학년), 은예령(2학년), 윤슬이(1학년)가 팀을 이끈 여중부 32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장거리 개인 종목인 여중부 3000m에서는 안예지(3학년), 남중부 3000m에서는 유시은(1학년)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필드 종목에서는 세단뛰기 이효준(3학년)이 12.94m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높이뛰기에서는 김민기(2학년)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병관 광주체육중 교장은 “대회 기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량 향상을 입증한 선수들이 대견하다”며 “제6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최상의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실전 중심 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로리 매킬로이, 역대 4번째 마스터스 2연패

타이거 우즈 이후 24년만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역대 4번째로 마스터스 토너먼트 2연패를 달성했다.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는 13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90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2천25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매킬로이는 세계랭킹 1위인 스킵 캐플러(11언더파 277타·미국)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460만달러를 거머쥐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그린 재킷을 입은 매킬로이는 잭 니클라우스(1965-1966년·미국), 닉 팔도(1989-1990년·잉글랜드), 타이거 우즈(2001-2002년·미국)에 이어 역대 4번째 마스터스 2연패 주인공이 됐다.

매킬로이는 2007년 프로 데뷔 후 유독 마스터스와 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지난해 17번째 도전 만에 정상에 오르며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역대 6번째로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우승으로 매킬로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승과 통산 30승도 함께 기록했다. /연합뉴스